



젖소도 건강검진시대, 「무병장소」프로그램 개발

◆ 영양·대사성질환 진단 영농기술의 농가 맞춤형 적용기술 보급 필요

- 젖소 가축질병 농가 전체 손실액 1,081억원(2006)
- 젖소 우군내 약 5~20%의 대사성질환 발생으로 생산성 악화

핵심성과

- 젖소 영양·대사성질환 발생 진단·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
 - 젖소 대사관리 프로그램 '무병장소' 웹사이트 오픈(10년 12월)
 - 웹사이트 주소 : <http://plaza.nias.go.kr/mpt>
 - ※ '무병장소'란 '질병없이 오래사는 소'라는 뜻의 대사관리 프로그램명

실용화(산업화)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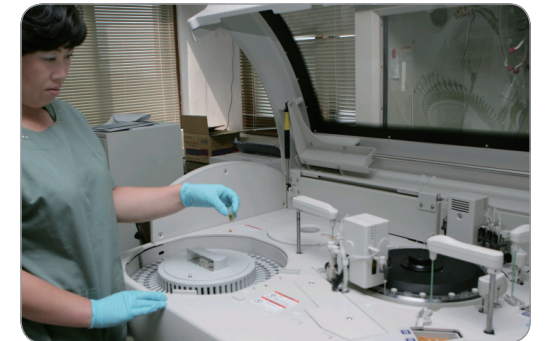
- 낙농가의 젖소 대사성 질환관리에 대한 온라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
 - 온라인으로 검사결과 확인 및 전문가 컨설팅 가능
- '무병장소' 활용 낙농가 건강검진 및 컨설팅 실시로 강소농 육성
 - 농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확대 적용

기대효과

- 정기적인 젖소 건강검진으로 대사성 질병 발생 50% 감소 기대
- 고능력우 건강상태 유지 및 우유생산 증대로 생산성 향상



〈젖소 채혈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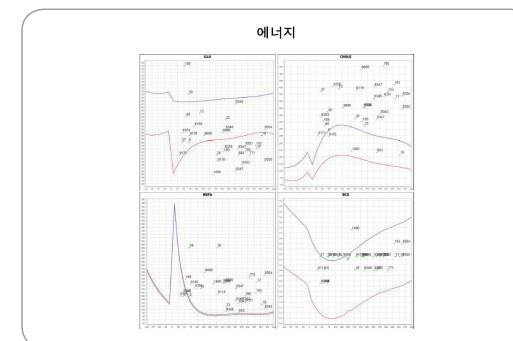
〈혈액분석 실시〉



〈대사성질환 간이 진단〉



〈무병장소 메인 화면〉



〈무병장소 분석 결과〉



〈맞춤형 컨설팅〉

□ 담당자 : 정영훈, 041-580-3405, vet9973@korea.kr